

제니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코치이자 사업가인 패트릭 무라토글로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이하다

2020년 1월 20일, 르 로클: 호주 오픈 그랜드 슬램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첫날, 제니스가 아이코닉한 테니스 코치이자 사업가인 패트릭 무라토글로(Patrick Mouratoglou)를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테니스 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패트릭 무라토글로는 6세의 나이에 공을 처음 잡은 이후 테니스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어 언젠가는 챔피언십을 거머쥐겠다는 꿈을 꾸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운명은 패트릭을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패트릭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부모님이 그가 평범한 교육과 진로를 따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 수업을 익히고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을 타고난 패트릭은 26세의 나이에 무라토글로 테니스 아카데미(Mouratoglou Tennis Academy)를 설립하여 꿈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무라토글로 아카데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아카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릭은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위치의 프로 테니스 선수들을 코치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선수의 코치와 멘토링을 맡았던 패트릭은 2012년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의 코치가 되며 경력의 새로운 정점을 맞았습니다. 세레나의 롤랑가로스 그랜드 슬램 오픈 라운드에서의 첫 패배 이후 패트릭은 세레나가 2회의 올림픽 금메달, 10번의 그랜드 슬램 타이틀, 3개의 이어 엔드 챔피언십 및 그 외 수많은 타이틀을 획득하며 다시 랭킹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녀는 3년 반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들이 이루어낸 "강력한 파트너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웬블던에서 처음 패트릭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잘 맞았죠. 저는 그의 스토리와 카리스마, 결단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열정과 에너지는 제니스의 기업가 정신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라고 제니스의 CEO 줄리안 토네르(Julien Tornare)는 패트릭 무라토글로와 그들의 뜻깊은 만남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패트릭은 투자와 인내심, 스스로 일구어낸 업적 그리고 겸손함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테니스 계의 카리스마 넘치는 코치이자 널리 존경받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길 앞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며 높은 명성을 얻은 패트릭의 이야기는 관습을 탈피하고 기대를 뛰어넘으며 "별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는 제니스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시계 애호가로서 1865년부터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제니스의 파트너가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브랜드의 철학인 "별을 향한 도전"은 제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꿈꾸던 목표에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결국에는 저만의 "별"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죠. 위대한 테니스 타이틀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동안 다양한 디테일을 갖춘 제니스의 시계를 착용할 것입니다."라고 패트릭 무라토글로는 전했습니다.

패트릭은 코칭 외에도 테니스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는 그는 패트릭 무라토글로 재단을 통해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유망 테니스 선수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세계 최고의 자리로 이끄는 코치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 방영되는 TV 쇼의 스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패트릭은 이미 이룬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제니스: 별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의 설립 이후 제니스는 오늘날 “시계 매뉴팩처”라고 불리는 최초의 컴퍼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와 성층권 자유낙하라는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에 이르기까지 큰 꿈과 함께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에서부터 0.01 초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장 빠른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 21, 그리고 30 개가 넘는 부품을 단일 요소로 대체하며 레귤레이팅 기구의 혁신을 이끈 인벤터까지 제니스는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별을 향한 도전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